

새만금공사 중단 판결 '앞과 뒤'

# 갯벌의 생태적 가치 공감 사람·자연 공생의 '상징'

### ◎공사중단배경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은 사업의 적정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즉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가 들어갔고 공사가 73%나 진척됐지만 '선심성 행정'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받아온 대형국책사업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공사 중단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요인은 수경스님을 비롯한 4개 종교 성직자들의 '삼보일배'다.

김귀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직자들의 삼보일배가 국민들에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인지·공감시켰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

집행정지 결정은 민사소송의 가

처분 신청처럼 본안사건 선고 전에 긴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지하는 조치여서 최종판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환경단체들의 '논리'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등 일부 정부부처와 전라

## '북한산 관동도로'에도 직·간접 영향줄 듯

북도의 강한 반발.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 했고, 전라북도측도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측은 "사법부의 고심에 찬



◊전북 부안에 위치한 해창갯벌에 못생명의 상생을 염원하는 조형물이 서 있다.

판결에 반발해 한 국가의 장관이 사표를 내는 행위는 정부 스스로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결정된 정책 준수'를 스

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 간에 대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 ◎불교계, 어떻게 볼 것인가?

불교환경연대는 15일 환경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는 생명과 환경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슬기

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북한산 관동도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는 이번 결정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즉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됐고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됐지만 새만금저택 사업의 적정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된 북한산 관동도로도 우회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론이다. 새만금과 같이 정부가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7월로 예정된 노선 결정도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서영스님은 "새만금과 북한산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은 뒤 "환경문제는 환경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해수유통되게 4공구 트고 간척면적 90% 축소해야"

새만금공사 중단 이끌어 낸 수경 스님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16일, 수경스님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다. 스님은 북한산 관동노선 폐기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14일부터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계종 교구분발사 릴레이 단식농성을 지키고 있었다.

먼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가벼운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지나친 긍정이 수행자의 '무욕정신'에 반한다는 뜻이 담긴 웃음이란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삼보일배가 이룬 쾌거가 아니겠냐고 질문해 보았다.

"삼보일배 당사자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질문을 돌려 이야기를 풀어 보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16일 농림부장관이 사퇴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



이 들어갔다. "아마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북한산 문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자 조계종 원로회의 유시까지 내려진 사안입니다."

## 무릎 연골 수술... 등산용 지팡이 짚고 거동

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건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잘 풀어지겠지요." 새만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일단은 4공구를 터 해수가 유통되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타진 부분은 다리로 연결하고 간척 부분도 기존 계획보다 10분의 1정도로 축소하구요. 전라북도나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새만금 문제와 북한산 문제를 연결시켜봤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북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여기서부터 스님의 어투에 힘

즉 불교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쉽게 관동노선으로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교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스님은 삼보일배 후유증으로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뒤 등산용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불편한 걸음걸이지만 북한산 문제가 시급해 서울에 올라왔다. 또 스님은 비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당분간 남원 실사사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여전히 귀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노천법당을 선방삼아.

남동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 조계종 종단문장(안) 싸고 이견

최근 조계종이 발표한 '종단 문장(紋章·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표시)'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조계종을 상징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조계종은 5년간의 작업 끝에 '삼보륜(三寶輪)'을 종단 문장으로 개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경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삼보륜이 원이삼점과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이삼점'은 삼보륜을 뜻하는 세 점(·)을 선사상과 윤회를 뜻하는 원(○)안에 넣은 형태다. 여기에서 세 점은 '불·법·승' 또는 '법신(法身)·지혜(大般若·해탈(解脫))의 법을 상징한다.

이 세 점을 감싸고 있는 원은 '일원상(一圓相)' 또는 '원상'이라

고도 한다. 일체중생의 불성은 본래 평등하다는 진리를 표시한 것으로, 선종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일원상에서 찾으려 했다. 삼 점과 일원상을 합한 것이 바로 원이삼점이며, 보통 '삼보상'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보편적인 불교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삼보륜이 원이삼점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다. 일원상에 '법륜'의 의미를 압축해 표현했다는 점이다. 원이삼점이 '삼점+일원상'이라면, 삼보륜은 '원이삼점+법륜'인 셈이다. 그래서 삼보륜의 일원상 두께는 원이삼점의 일원상보다 두껍다.

하지만 원 두께 만으로 원이삼점과 삼보륜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미지가 똑같아 '상징'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이삼점은 사찰 법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선학원과 불교방송의 문장으로 쓰이

고 있다. 또 일원상은 원불교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진철문씨(한국조형연구소 대표)는 "단순한 것은 좋지만 너무 일반적이다. 조계종의 상징이라면 이 미지를 리드해야 하는데, 원이삼

점을 쓰는 곳이 적지 않다"며 독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종회의 한 관계자는 "느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삼보륜은 '조계종 상징으로 봐달라'며 느낌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문양으로서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계종의 설명은 다르다.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선불교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조계종을 차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너무 일반적, 독창성·참신성 결여

## 선불교 이미지... 조계종 차별화 문제없다

##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향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

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영가법문

-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암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암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